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12. 29.(화) / 총 10매(본문9, 붙임1)	
담당부서	공공택지기획과	담당자	• 과장 양희관, 사무관 하태아·강한우, 주무관 유경석 • ☎ (044) 201-4526, 4515, 3356
	광역교통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손덕환, 사무관 김인규, 주무관 양은혜 • ☎ (044) 201-5045, 5056, 5057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9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남양주왕숙 · 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!

- 도시철도, GTX 등으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-
-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 중 -

-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(‘20.12.4)를 거쳐 남양주왕숙(6만 6천호)과 고양창릉(3만 8천호)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.
 -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, 한국교통연구원(KOTI) 검증, 지방자치단체 협의,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.
-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,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.
 -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된 하남교산·과천은 도로사업 실시 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를 정상 진행 중으로 ‘21년부터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,
 - 인천계양·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통합대책을 수립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(12.30)를 완료할 계획이다.

1. 남양주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

◆ 서울 강동~하남~남양주 도시철도 등 18개 사업에 총 2조 3천억원 투입



□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~하남~남양주 간 도시철도^㉔로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.

- 사업지구 내부로는 입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경춘선 역사(GTX-B 정차)^㉕ 및 경의중앙선 역사^㉖를 신설하며,
- 지역 전체로는,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^㉗에 비용을 분담하고, 상봉~마석 간 셔틀열차^㉘를 운행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또한,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양주~서울 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대중교통개선 사업^{㉙*}을 반영하였다.

* Moveable barrier 방식의 역류가변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BTX(Bus Transit eXpress)를 구축, 오전 출근 시 왕숙지구~강변역까지 약 30분 단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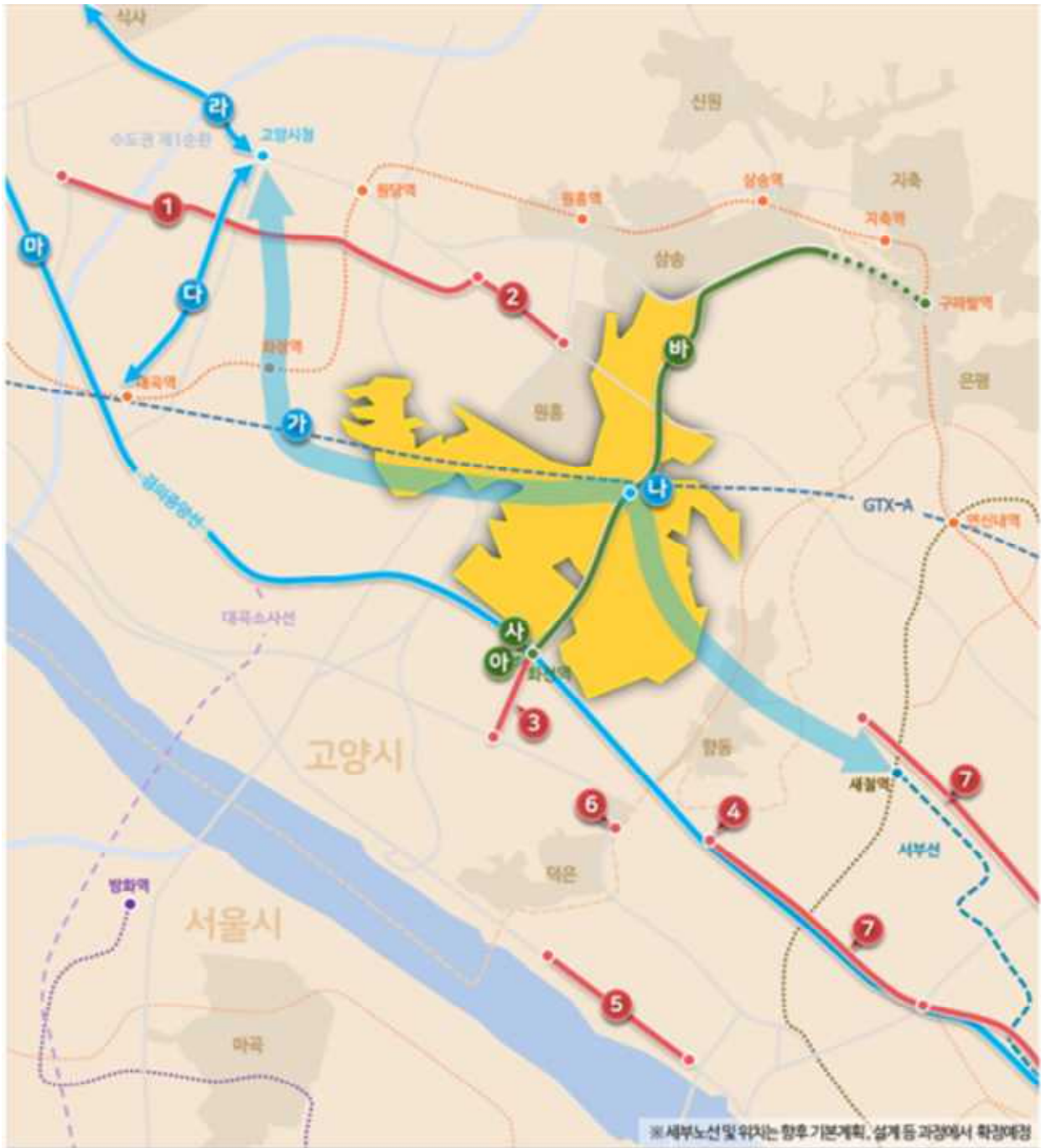
□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,

- 한강변 도로망의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한강교량 신설^{①-A}을 추진하며, 이와 연계하여 올림픽대로(강일IC~선동IC, 암사IC~강동IC)를 확장^{①-B③-1}하고 강일IC 우회도로를 신설^{③-2}한다.
- 또한, 상습정체구간인 북부간선도로(중랑IC~구리IC)^⑨와 경춘북로(퇴계원 시가지)^⑧ 및 구국도46호선(왕숙2~금곡동)을 확장^⑦하여 남양주~서울방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였다.
- 또한, 주변 지구와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지방도383호선^② 및 진관교(왕숙~퇴계원) 확장^④을 추진하는 한편, 왕숙2~양정역세권^⑤과 왕숙2~다산지구^⑥간 도로를 설치하여 주변 지구간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.

□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방면 45→25분, 강남역방면 70→45분으로 단축되고 북부간선도로, 강변북로, 올림픽대로 등 기존 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2.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

◆ 고양~서울 은평간 도시철도 등 16개 사업에 총 2조 2천억원 투입



* 세부노선 및 위치는 향후 기본계획, 설계 등 과정에서 확정예정

대중교통개선					
1	고양-서울 은평간 철도 건설 (고양시청-세갈매) / 14,100억원	4	GTX-A 청릉역 신설 / 200억원	4	대곡-고양시청신교통수단 신설 (100억원)
2	고양시청-석사자구 신교통수단 지어임	5	경의중앙선 승차 200억원	5	입주초기 대중교통 운영지원 100억원
3	중앙로-동일로BRT 연계 200억원	6	화전역 환승시설 100억원	6	화전역-BRT정류장 연계 180억원
4	광역버스 교통체계 개선 100억원				
도로교통 개선					
1	일산-서오릉로 연결도로 2,000억원	2	서오릉로 부분확장 (4→6차로) / 200억원	3	중앙로-계2자유로 연결도로 750억원
4	수색교 확장 (4→6차로) / 130억원	5	강변북로 확장 (10→12차로) 400억원	6	덕은2교 교차로개선 40억원
7	서울 간선도로 TSM 350억원				

□ 고양창릉지구는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으로 고양~서울
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^㉓와 GTX-A 창릉역 신설^㉔을 추진한다.

○ 또한, 고양시 지역 내 철도 소외지역 간 연계를 위해 대곡~고양
시청^㉕, 식사~고양시청^㉖ 신교통수단 사업을 계획하였다.

* 대곡~고양시청 신교통수단사업은 기존 교외선 활용 예정

○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양시 인근 도심지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
수 있도록 사업지 남북에 위치한 중앙로 및 통일로 BRT 연계를
위한 사업지구 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^㉗ 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울 도심 이동시간을
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교통체계개선 사업^㉘도 반영하였다.

○ 특히, 간선-지선버스 및 버스-철도-PM(개인형이동수단) 등 다양한
이동수단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화전역 환승시설^㉙을 설치하고
중앙로 BRT(대화~신촌) 정류장과도 연계^㉚하여 편리한 환승서비스를
제공한다.

□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,

○ 인근 지역의 서울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일산~서오릉로
연결도로^㉛ 신설과 서오릉로 확장^㉜을 계획하였다.

○ 또한, 인접한 주요 도로와의 원활한 접속 등 서울방면 주요 교통
수요를 분산하고자 중앙로~제2자유로 연결로^㉝를 신설하고

-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수색교 확장(7차로→9차로)^㉞, 강변북로 확장
(10차로→12차로)^㉟, 덕은2교 교차로 개선^㊱, 서울시내 주요도로 교통
체계개선^㊲(TSM : 신호체계 개선 및 차로조정 등)을 시행할 계획이다.

□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방면 40→10분,
여의도방면 50→25분으로 단축되고 주변 도심지인 원흥, 화정, 지축 지구
등 수도권 서북지역의 도로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,

-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, 이와 병행하여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사업에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, 서울시,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'21년 상위계획 반영, 기본계획 착수 등을 거쳐 '24년 착공, '28년 준공(고양선은 '29년 준공)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.
- 현재 先 발주하여 진행 중인 지방도383호선 확장 등 4개 사업의 설계용역 이외에 나머지 도로분야 개선대책도 '21년 상반기 중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3기 신도시는 철도 등 교통시설 개통 전 입주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운영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,

-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올해 도입된 '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'를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입주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.
- 특히, 올해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원호매실, 화성동탄2 지구를 우선 지정하였으며 광역버스 투입 등 특별대책을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광역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3.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추진현황

- 수도권 30만호는 3기 신도시 등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·토지보상 병행 등 Fast-Track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, 24만호의 지구계획을 '21년에 확정할 계획이다.
- 3기 신도시 5곳 모두 (국제)설계공모를 통해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, 남양주왕숙·하남교산·인천계양은 지구계획(안)을 마련('20.10)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'21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.
- 고양창릉·부천대장은 도시·건축·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구계획(안)을 마련 중이며, '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.
- 남양주왕숙·하남교산·인천계양 등은 8월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했으며, 하남교산·인천계양은 연말부터 보상이 본격 시작되고,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보상에 착수 할 계획이다.

* 고양창릉,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 예정

< 3기 신도시 현황 >

구분	동부권		서부권		
	남양주 왕숙	하남 교산	인천 계양	고양 창릉	부천 대장
면적	1,134만m ²	649만m ²	335만m ²	813만m ²	343만m ²
호수	6.6만호	3.2만호	1.7만호	3.8만호	2.0만호



< 남양주왕숙 >



< 고양창릉 >



< 하남교산 >

- 서울 도심 사업은 동작 주차공원, 봉천동 관사 등을 연내 주택 사업 승인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며, 장지·강일차고지 등 내년 까지 2.4만호 사업 승인 계획이다.
- 또한, 강서아파트(523호), 대방아파트(183호), 동작구 수방사부지(255호) 등 2천호를 내년에 입주자 모집 할 예정이다.



- 또한, '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'(5.6)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1.5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.
 - 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,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,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'23년에 착공할 계획이다.
 - 영등포 쪽방촌은 지구지정을 완료('20.7)했고 '21년 설계공모를 거쳐 '22년초 지구계획 수립 계획이며, '21년까지 용산유수지 등 2.7천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'22년까지 4천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.
- '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'(8.4)에서 발표한 태릉CC, 용산캠프킴, 정부과천청사,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며,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'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.
 - 태릉CC는 올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,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.
 -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,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개선, 공원녹지, 문화재 보존 및 생활SOC 조성 등을 위한 개발구상을 수립 중이다.
 - 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 - 이번 달에 부지반환이 완료된 용산캠프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토양오염 정화절차에 착수하고, 각종 인·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.

- 다른 부지도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,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,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.2만호('21년 3만호, '22년 3.2만호)에 대해 **사전청약***이 시행된다.

* 지구지정 → 지구계획 승인 → 사전청약 → 사업승인 → 주택착공 → 본청약

-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입주예약자 선정, 입주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*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며,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·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이다.

* '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' 제정 절차 진행 중(행정예고, 12.22~1.13)

- 새롭게 단장한 3기 신도시 누리집*(www.3기신도시.kr)에서 청약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 일정 등의 청약정보를 3~4개월 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.

* '미리보는 3기 신도시' 등을 통한 관심주택 모습 제공 등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127일 재오픈 누리집 개설(8.6) 후 260만명 방문, 29만명이 청약알림 신청,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가 40%



- 아울러 누리집을 통하여 수립된 60~85㎡ 주택면적에 대한 국민 선호도(60%)를 반영해 60~85㎡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30~50% 수준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.

* 60~85㎡ 공공분양 비율('20.11월 개정) : (기존) 15% → (개선) 30~50%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택지 기획과 하태아 사무관(☎4526), 강한우 사무관(☎4515), 광역교통정책과 김인규 사무관(☎5056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Q1. 왕숙지구 '강동~하남~남양주간 도시철도' 사업의 노선, 역사위치 및 운영방식 등은 어떻게 되는지?

- 사업의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은 기본계획, 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며,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개략적인 사업의 방향성만 제시함

Q2.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특징은 무엇인지?

-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중교통 중심, 선교통·후입주, 인근 지역과 상생의 방향성을 토대로 마련하였음
 - 광역교통 편의를 위해 철도, BRT 중심의 교통시설을 계획하였으며, 설계 先발주, 개선대책 수립기간 단축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입주초기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
 - 또한, 기존 도심 등 인근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반영한 상생의 교통대책을 마련하였음

Q3. 입주 초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들의 완공이 가능한지?

- 지방도383호선 등 4개 사업의 설계용역을 기 착수하여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며, 나머지 도로 사업들도 내년 상반기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입주 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
 - 철도대책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하여 세부사항 논의, 기본계획 착수 등 적기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, 개통 이전에는 대중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광역버스 운행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임